

인도네시아, 타이어생산 활발

1. 경제둔화속 2월말 20% 증가 내수침체 · 中產유입등 걸림돌

인도네시아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타이어생산이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다. 내수용 수송차량과 수출시장에서의 수요증가로 2001년 1~2월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20% 정도 늘어났다.

그러나 각종 세율상승 등으로 시장이 냉각되고 기업의 자본채투자가 줄어 향후 내수확대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제 수입타이어가 저가공세를 펴고 있어 향후 생산증가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2. 2월말 373만개로 내수 · 수출 호조

인도네시아 타이어제조업자협회(APBI)에 따르면 2001년 1~2월의 국내 타이어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한 373만개에 달해 내수와 수출시장에서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다.

생산품목별로 보면 승용차용 타이어가 전체생산의 50%에 해당하는 181만개, 경트럭용이 63만개, 특히 호조를 보인 수송차량용 타이어는 60만개가 생산됐다.

반면 산업 · 건설차량용 타이어생산은 6만개에 그쳤다. 이는 경기불안으로 기업의 자본채 신규 · 확대투자가 늘지 않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1~2월의 타이어수출은 루피아약세 등의 영향으로 123.4% 늘어난 391만개로 급증했다.

■ 향후 내수침체 우려

그러나 2001년 1월부터 자동차, 가전제품 등 사치성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됐고 이달 들어서는 산업용 연료가스가격마저 인상되는 등 타이어제조업계의 주변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1월 자동차용 타이어생산량은 전월대비 26.4% 급증한 177만개였다. 이에 대해 APBI의 이지스 파내회장은 “OME수요가 21% 늘어났고 애프터마켓(교환용 타이어) 수요도 13% 늘어난 점이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3. 세율 · 연료비 상승으로 환경 악화

하지만 경기둔화로 각 자동차메이커가 재고조정에 나서고 있어 향후 큰 폭의 생산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지 업계관계자는 “OME생산에서는 향후 큰 폭의 신장세를 기대하기 힘들고 애프터마켓도 약간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기는 하나 사회와 치안정세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안정된 수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다만 수출시장이 루피아 약세의 영향으로 여전히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적인 업황분위기는 그리 밝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 중국제 타이어와 가격경쟁 심화

이처럼 타이어 산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저가 중국타이어 유입이 큰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APBI는 중국제 타이어의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이 약 10%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4. 中產 시장점유율 10%

APBI의 이지스회장은 지난달 국회연설에서 “중국제품은 인도네시아제품에 비해 30~40%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나 품질 면에서 문제가 있어 국가표준규격(SNI)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규격과 품질 면에서 문제가 있는 저가 중국제품 유입을 저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타이어업계는 내수침체를 경쟁력강화와 수출시장확대로 극복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모로코, 한국산 타이어 호평

가격대비 품질 좋아 소비자들 선호

모로코의 자동차 타이어 시장규모는 지난 99년을 기준으로 12억5천만 디람(1억2천만달러)인 것으로 관련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으며 매년 모로코에서 소비되는 타이어는 약 200만개로 추산된다.

모로코 타이어 시장구조는 밀수등 비공식 시장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정규시장이 70%를 합법적인 수입상과 모로코내 현지 투자한 국이어가 25%, 제너럴 타이어가 15%로 시장을 양분하고 외국산 수입타이어가 전체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모로코 타이어 시장은 북부 세우타를 거점으로 한 밀수시장의 존재와 신타이어, 중고타이어 및 재생타이어 시장으로 혼재되어 있어 시장구조가 왜곡되고 있다.

사실상 불법 유입된 타이어 물량이 상당한 시장을 잠식해 국내 생산량과 정규 수입시장 물량 및 나아가 타이어 유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로코 북부지역에서 불법유입되는 밀수타이어는 정규 수입품에 비해 가격면에서 최대 40%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 판매되는데 최근에 제품 질도 좋아 모로코 세관당국의 밀수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유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수입 타이어는 모로코 현지 생산품 대비 가격과 품질 경쟁력으로 인해 큰 폭의 성장을 이루었다.

더욱이 모로코 자동차 시장 활성화로 타이어 수요는 대폭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모로코 자동차 시장은 96년 국민차인 이탈리아 피아트사 Uno 모델의 모로코내 조립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상용차 포함 200만대를 상회하고 있다.

이같은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는 타이어 시장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모로코 외환관리국 수입통계에 따르면 모로코의 타이어 수입량은 꾸준한 증가를 보이며 연간 10% 성장을 보이고 있다. 수입 타이어는 승용차용, 상용차용, 트랙터 등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유럽 특히, 프랑스산 Michelin, 이탈리아산 Pirelli가 오래전부터 일반소비자에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시아산으로는 일본과 한국산이 잘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들어 중국과 인도네시아산이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중저가품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 90년대 중반에 진출한 한국산 K, H타이어는 단기간에 수입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호평을 받으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한국산 타이어는 가격대비 좋은 품질로 승용과 상용차 타이어 시장에서 호평받고 있다.

스위스, 승용차 타이어 전량 수입

99년 스위스의 타이어 시장규모(자전거용 타이어 제외)는 금액기준으로 연간 6억2천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일반 승용차 및 각종 트럭, 트랙터, 산업용 차량에 쓰이는 타이어 매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수량기준으로는 총 590만개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카테고리별 판매량은 승용차용 타이어 540만개, 소형 트럭용 37만개, 대형 트럭용 16만5천개, 트랙터용 3만4천개, 산업차량용 1만9천개 등으로 승용차용 타이어가 전체 판매량의 91%를 차지했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일부업체에서 트랙터 등에 쓰이는 타이어를 소량 생산할 뿐 승용차용 타이어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은 Continental, Michelin, Bridgestone 등의 메이커를 보유한 독일 및 프랑스, 일본 등이며 99년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이들 3개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연간 전체 수입의 57%를 차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99년 기준 730만달러의 타이어를 스위스로 수출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약 10% 줄어든 금액이다.

주요국 수입동향 (단위: CHF천)

국	별	1998	1999
독	일	87,949	95,324
프	랑	62,662	63,761
일	본	32,704	33,572
영	국	27,760	28,824
이	탈 리 아	29,057	22,943
네	델 란 드	15,414	16,874
스	페 인	15,303	15,717
한	국	12,262	10,999
오	스 트 리 아	14,548	8,266
핀	란 드	6,289	7,726
총	계	327,351	336,518

자료: 스위스 연방 통계청

최근 스위스의 자동차정보 전문사이트인 pneu-matti.ch가 스위스내 유통중인 업체별 동절기 타이어의 성능을 비교한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 A사 제품은 눈길 브레이크 성능 및 빗길 핸들링 성능이 타사 제품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반면 내부 소음도 및 빗길 브레이크 성능은 비교적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스위스에서는 폭이 넓고 타이어 표면 무늬가 작은 제품의 인기가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시속 210km에서도 소음이 크지 않고 안전 운행이 가능한 제품이 기본으로 통한다.

일반 승용차용 타이어의 스위스내 평균 소매가격은 개당 100달러이며 화물차용 타이어는 113달러, 일반트럭용 타이어는 313달러에 달한다.

한편 스위스에는 신품과 중고품 가격차이가 점차 줄면서 더 이상 재생타이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만 트랙터나 지게차용 타이어는 일부 재생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료: KOTRA)